

# 농어민 공익수당 전면확대 무산

도의회, 주민청구 조례안 부결  
“시군 반대에 공론화도 불충분”  
전농 “농촌 살리기 외면” 반발

■ 2021년도 전북지역 농어민 공익수당

구분	지급 대상	지급액	추정 수혜자	추정 사업비
전북도 지원계획	농가 및 어가	연 60만원	117,632가구	706억원
주민청구 조례안	농어민 개개인	연 120만원	226,000명	2,712억원

게다가 사업비를 보태야할 기초 지자체들마저 하나같이 지방재정난을 비롯해 코로나19 파동 장기화로 큰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는 점도 부결 사유가 됐다.

김철수(정읍1) 농산업경제위원장은 “1년 전 해당 안건을 부결 처리하면서 추후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면 삼락농정위 내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그렇지 못하다. 전라북도와 시·군의 재정 형편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부결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공익수당 제도를 2~3년간 운영해본 뒤 평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삼락농정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줄 것”을 전북도에 권고하기도 했다.

청구인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농과 전어농 등 ‘농어민공익수당당례개정주민청구전북운동본부’는 “주민청구 조례안을 재차 부결 처리한 것은 허

물어저가는 농촌을 되살려야 도시와 나라도 살수 있음을 간절히 호소해온 농민의 심장에 다시 칼을 찌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를 규탄하고 향후 대응계획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보호와 농어촌 유지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지칭한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 가을 농가(임업 포함)를 시작해 올 가을은 양봉과 어가까지 확대 지원되고 있다. 현재 지원금은 ‘농어가 당 연간 60만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청구인측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농어민 개개인에게, 즉 ‘1명당 연간 120만원’씩 확대 지원토록 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지난 9월 임시회에 제출했다.

청구인은 이대중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을 중심으로 모두 1만8,290명이 연서했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최영심 의원이 지난 15일 회의를 방문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주연구 의장 등 임원진과 현대차 울산공장과 전주공장간 상생안 타결을 주제로 환담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사진=전북도 제공

## ■전북도의회 10월 임시회

〈속보〉도내 농어업인들이 요구해온 농어민 공익수당 전면 확대 법제화가 또다시 무산됐다. 〈본지 9월1일자 2면 보도〉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민청구 조례안(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4일 농산업경제위에 상정됐지만 부결 처리됐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번째 부결이다.

이번 또한 청구인측과 집행부(전북도)간 사전논의 불충분, 특히 농정분야 민·관 협의기구인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와 제대로 된 사전협의 없이 조례안이 제출했다는 점이 문제화 됐다.

## “제2 혁신도시 추진하자”

도의회 제3기 공공기관 유치특위 구성  
오평근 위원장, 진형석 부위원장 선출



전북도의회 제3기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오평근 위원장(왼쪽), 진형석 부위원장.

도의원들이 이른바 ‘제2 혁신도시’로 불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체계 촉구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제3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10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중앙 정치권을 중심으로

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체계 움직임에 맞춰 제2 혁신도시 조성사업 준비를, 특히 전북지역 맞춤형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한 지원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제3기 특위 위원은 오평근(더불어민주당·전주2), 김희수(더불어민주당·전주6), 나인권(더불어민주당·김제2), 이병철(더불어민주당·전주5), 박용근(무소속·장수), 박희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진형석(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최영심(정의당·비례대표) 의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오평근, 부위원장은 진형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오 위원장은 “지난 1, 2기 특위활동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들이 전라북도 혁신도시 발전과 앞장배기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제3기 특위 활동은 인구 유입과 지역산업 육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추가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 PSB바이오, 방역물품 기증

정읍 PSB바이오사가 전북도에 코로나19 방역물품을 기증했다.

남궁수중 대표는 지난 15일 코로나19 극복을 돕고 싶다. 특히 방역 최일선에 뛰고 있는 전북도청 공무원들을 돕고 싶다는 뜻과 함께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손 세정제 2,000개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기탁식은 송하진 도지사, 송상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에서 열렸다. 송 지사는 “나눔을 실천해주신 남궁수중



대표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했고, 송 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종

식될 때까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성학 기자

## 현대차 전주 “도의회 덕에 정상화 기회”

울산물량 전주이전 협조 감사인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전주공장간 상생안이 전격 타결돼 화제인 가운데 전주노조 임원진이 그 지원활동을 펼쳤을 전북도의회에 고마움을 표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주연구 의장 등 임원진은 지난 15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송지용 의장(더불어민주당·완주1),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 등과 환담하고 “송지용 의장과 최영심 부의장께서 울산공장까지 방문해 노사 임원을 만나 전주와 울산공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통 큰 결단을 촉구하고, 전주공장의 절박한 상황을 울산지역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전달하는 등 노사 합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도의회 의정단과 의회의 노력으로 소형 승용차 생산이란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며 “전주공장에서도 소형 승용차를 생산하게 된 만큼 이번 기회가 전주공장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이에 대해 “당시 울산시민은 물론 언론도 전주공장이 울산공장의 물량을 뺏어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주공장이 겪고 있는 상황과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설명한 결과 울산시민은 물론 언론도 상생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소회했다.

그러면서 “전주공장에서 소형 승용차를 생산하게 된 만큼 전북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셨으면 한다”고 바랐다.

아울러 “현대차가 계획 중인 플라잉카, 수소모빌리티 사업이 전주공장에 우선순위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회가 중앙정치권 및 행정과 협력해 가교역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최 의원 또한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임원진의 노력으로 큰 위기를 넘겼다”며 “앞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면서 심기일전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 7일 승용차 실적부진에 어려움을 처한 전주공장 정상화를 위해 울산공장에서 생산해온 스타리아 물량을 전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의 상생안을 전격 타결했다. /정성학 기자

## 차 부품사 근로자 120만 원

익산·김제·완주 복지포인트  
18일부터 선착순 신청 접수

전북도는 익산, 김제, 완주지역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복지 포인트 지원 희망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지원액은 1인당 최대 120만 원이다. 지원 규모는 익산 353명, 김제

459명, 완주 471명 등 모두 1,283명이고 선착순이다.

지원 대상은 표준산업분류 코드상 C30, C31 기업 근로자, 또는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직접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정기적으로 납품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근로자이다.

단 익산과 완주는 100인 이하 기업체 재직자로 제한되고, 김제는 기업체 규모에 따른 제한이 없다.

신청은 전북고용안정사업단 누리집(www.jibwork.or.kr), 문의는 전화(063-225-1399).

한편, 복지 포인트 지원사업은 승용차에 이어 승용차까지 위기에 몰린 도내 자동차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대책 중 하나다. /정성학 기자

## 이원택 “농협케미컬, 전북 이전 시급히 추진돼야”

농협 케미컬의 전북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이 조속한 통합 분사 이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농협케미컬의 전북 익산 이전 추진사업이 경영체질 개선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협 케미컬은 오는 2023년까지

경기도 성남에 있는 공장과 본사를 익산 제3산업단지로 옮기기로 지난 2018년 7월 16일 전라북도와 익산시와 함께 1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농협 케미컬은 신속한 분사 이전 조치를 통해 농도 전북에서 농업인 실의 제고를 위한 농약시장 선도 기반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신재생에너지의 메카!**  
**RE100 전초기지**

분양가: 50만원/3.3㎡  
분양문의: 1577-4139

새만금 국가 산업단지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새전북신문**

현황판 / 액자 전문점

**동일화랑 · 액자 · 앨범 · 몰딩**

고귀한 분께 드리는 선물, 동일액자에서 준비하세요

- 각종 액자 제작 전문 도·소매
- 사진 인화 사진 출력

- ▷ 해바라기 사진
- ▷ 청사과 사진
- ▷ 메탈액자(알루미늄 판)
- ▷ 디아섹 액자(아크릴)
- ▷ 휴대폰사진을 액자로
- ▷ 최고급 거울 제작

중앙성당: 세이브존(구, 코아백화점)  
동일화랑, 액자: 시청 오거리1

**액자 공장** (전주 시청 - 세이브존 중간사이)  
T. 063. 282-6444 F. 231-6443